

조선 태종조 佐命功臣의 책봉 교서와 관련 문서의 기록 연구*

A Study of the Jwamyong-gongsin's Royal Certificate Appointment,
Related Records in the Time of Joseon's King Taejong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1. 서 론	3. 관련 문서의 반사 기록
2. 좌명공신의 책봉 교서 반포와 교서 내의 인물들	3.1 교서, 녹권 및 사패
2.1 좌명공신의 책봉 교서 반포	3.2 공신회맹서
2.2 교서 내 인물들	3.3 영정
	4.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

조선 태종조 책봉된 좌명공신의 교서와 관련 문서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공신들을 책봉하기 위해 어떤 기록들이 작성되었는지, 이런 기록들은 공신들의 정치참여와 변화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태종은 1년(1401) 1월 15일 제2차 왕자 난을 승리로 이끌고 자신의 정치발판을 마련해준 좌명공신 47명을 4등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이들은 정치일선에서 구심점이 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였다. 교서가 반포된 8일후인 1월 23일에 의정부에서 공신도감에 공문을 보냈으며, 2월 25일에 공신들에게 교서, 녹권 및 사패 문서를 하사하였다. 태종 1년(1401) 2월 12일에 정사, 좌명공신들과 더불어 삼혈동맹하고 공신회맹서를 작성하여 나누어 주었다. 태종 15년(1415) 3월 18일에 개국·정사·좌명 3공신에게 영정을 나누어 주었다.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공신도감에서 죄를 지은 세 공신들의 화상과 공권과 교서를 올리니, 이때 정사공신 1등 중 이무, 민무구, 민무질 3명, 정사공신 3등 중 조희민, 유기 2명, 정사공신 4등 중 조박과 윤목 2명의 영정은 모두 불태워졌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要語: 태종, 좌명공신, 책봉교서, 교서, 녹권, 사패, 공신회맹서, 영정

* 본 연구는 201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도서관정보문화트랙 교수(h4085@hansung.ac.kr)

투고일: 2019년 9월 14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서지학연구, 제80집, 113-140,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113>

<ABSTRACT>

This paper gathered all records pertaining to the jwamyong-gongsin (佐命功臣) who were appointed during the reign of Joseon's King Taejong in order to see what records were made to appoint gongsin (功臣), meritorious subjects, and how these records were maintained through the gongsi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hanges. On January 15 of the first year of Taejong's reign (1401), Taejong favored the 47 jwamyong-gongsin who provided a political steppingstone for him by leading the Second Strife of Princes to victory, and classified them into four ranking groups to reward and record as gongsin. The gongsin were sometimes in the political front lines and sometimes excluded from it. An official document was sent from Uijeongbu to Gongsindogam on January 23, eight days after the royal certificate was issued, while on February 25 the gongsin were bestowed a royal certificate, nokgwon and sapae (賜牌) documents, which were grants of land and slaves. On February 12 of the first year of Taejong's reign (1401), the king saw to state of affairs, held a white horse oath called sabhyeoldongmaeng (歃血同盟) with his jwamyong-gongsin, and drew up and handed out a gongsin oath. On March 18 of the 15th year of Taejong's reign (1415), he issued portraits to the three gaeguk, jeongsa and jwamyong gongsin respectively. On December 8 of the fourth year of Sejong's reign (1422), the Gongsindogam or Directorate of Meritorious Subjects mentions portraits, the gongsin-nokgwon and the royal message of three gongsins who were guilty of wrong. Three first-ranking jeongsa-gongsin Jung Iee mu, Min Mu-gu and Min Mu-jil ; two third-ranking jeongsa-gongsin Jo Hui-min and Yu Kee ; and two fourth-ranking jeongsa-gongsin Jo Pak and Yun Mok had their portraits burned.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the most basic research result in bibliography, records management and history.

Key words: Taejong, jwamyong-gongsin, issuing royal certificate, royal certificate, nokgwon, sapae, gongsinhoemaengseo, portrait

1. 서론

조선 초기 태조조부터 태종조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공신은 개국(開國), 정사(定社), 좌명(佐命) 공신이다. 태조는 원년(1392) 7월 17일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개국하였고,¹⁾ 8월 2일에 공신도감을 설치하였다.²⁾ 그 해 9월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신하 중에서 배극렴(裴克廉) 등 1차 44인을 1·2·3등으로 나누어 책록하였고, 2차와 3차는 각각 8명·3명을 추가하여 최종 55인에게 교서와 녹권을 내려 논공행상하였는데,³⁾ 이들이 개국공신이다.

정사공신은 태조 7년(1398)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다. 조선 태조의 제8남인 방석(芳碩)과 그를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남은(南閔)·심효생(沈孝生)·장지화(張至和)·이근(李勤) 등 구신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기반을 마련하는 데 공을 세운 29명을 두 등급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다.⁴⁾

좌명공신은 정종 2년(1400)에 방간(芳幹)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朴苞)가 방원(芳遠)의 위세를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방원은 이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 태종 1년(1401) 1월 15일 공을 세운 47명을 4등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는데, 이때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들 개국, 정사, 좌명공신을 삼공신이라고도 한다. 이들 삼공신에게 반사된 공신녹권의 실물이 다행히 1종씩 남아 있다. 1988년 국보232호로 지정된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에게 반사된 개국공신녹권,⁵⁾ 2018년 보물 제2009호로 지정된 장철(張哲)의 정사공신녹권,⁶⁾ 2006년 4월 28일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된 마천목(馬天牧)의 좌명공신녹권⁷⁾에 대한 서지적 연구성과가 이루어졌다. 또한 마천목의 실물 녹권 이외에도 좌명공신의 교서, 사패, 실물 전시 등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고,⁸⁾ 조선초 공신책봉과 개국·정사·좌명 공신의 정치적 동향을 분석한 연구 성과도 있었다.⁹⁾

1)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 태조 1년(1392) 7월 17일(병신) 1번째 기사.
“丙申 十七日 丙申 太祖卽位于壽昌宮.”

2) 『태조실록(太祖實錄)』 1권, 태조 1년(1392) 8월 2일(신해) 1번째 기사.
“辛亥 置功臣都監.”

3)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국공신, [2019.7.24.]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1584>>

4)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사공신, [2019.7.24.]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0303>>

5) 千惠鳳,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3(1988. 6), 25-67.

6) 진나영, 송일기,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2013. 8), 227-250.

7) 서병패, “조선 초기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의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29(2005. 12), 27-58.

8)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의 검토 -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전북사학』 36(2010), 63-86.

박성호, “조선시대 사패(賜牌)의 발급과 문서양식,” 『고문서연구』 41(2012. 8), 95-124.

박성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초기 왕명문서의 고문서학적 가치,” 『고궁문화』 7호(2014), 8-29.

박성호, “조선초기 좌명공신 김영렬 공신문서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50(2017. 5), 159-180.

조선 초기 국가에 공훈을 세운 공신들을 책봉하기 위해 어떤 절차에 따라 그들에게 교서를 반포하고, 녹권, 사패, 공신회맹서, 영정 등의 관련 문서를 반사했는지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은 태종조 좌명공신을 책봉한 이후가 가장 적합하다. 국왕이 반포한 교서를 비롯하여 관련된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태종조 좌명공신의 교서와 관련 문서의 기록을 종합하고자 한다. 우선, 공신 책봉 이후 교서의 반포와 교서 내의 인물들을 정리하고, 각 공신에게 준 교서, 녹권 및 사패 그리고 공신회맹서 및 영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공신들을 책봉하기 위해 어떤 기록들이 작성되었는지, 이런 기록들은 공신들의 정치참여와 변화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좌명공신의 책봉 교서 반포와 교서 내의 인물들

태종은 1년(1401) 1월 15일에 제2차 왕자 난을 승리로 이끌어 자신의 정치발판을 마련해준 좌명공신 47명을 4등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서의 반포와 교서 내의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좌명공신의 책봉 교서 반포

태종은 정종 2년(1400) 정월에 일어난 제2차 왕자 난을 승리로 이끌면서 조선조 3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해 11월 13일에 조선 제3대왕으로 즉위하였다. 태종은 1년(1401) 1월 15일 좌명공신을 책봉하고 교서를 반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⁰⁾

9)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35(2009. 5), 153-187.
10)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 태종 1년(1401) 1월 15일(을해) 2번째 기사.

“錄佐命功爲四等 教曰 往者逆臣朴苞(包莊)包藏 禍心 陰挾懷安父子 謀害我骨肉 遂至稱兵向闕 肆爲兇逆 宗社安危 間不容髮 上黨侯 李佇 門下左政丞李居易 右政丞河崙 判三軍府事李茂 門下侍郎贊成事趙英茂 左軍摠制李叔蕃 中軍摠制閔無咎 左軍同知摠制辛克禮 驪城君 閔無疾等九人 協心徇義 應機決策 戡定禍亂 載安宗社 盡忠佐命一等稱下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二等 田一百五十結 奴婢十三口 白銀五十兩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藝文春秋館學士李來 徇義忘私 聞變首告 盡忠佐命 義安公 和 完山侯 天祐 聞變赴急 以濟禍亂 翊戴佐命二等稱下 父母妻超二等封贈 直子超二等蔭職 無直子 甥姪女壻超等 田百結 奴婢十口 白銀二十五兩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仕 昌寧伯 成石璘 完川君 淑 門下贊成事李之蘭 開城留後黃居正 知三軍府事尹柅 金英烈 右軍同知摠制尹坤 刑曹典書朴嘗 都承旨朴錫命 上將軍馬天牧 判殿中寺事趙希閔 奉常卿柳沂等十二人 推誠勳力 累曾効忠 翊戴佐命三等稱下 父母妻超一等封贈 直子超一等蔭職 無直子者 甥姪女壻 田八十結 奴婢八口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銀帶一腰 表裏一段 鹿馬一匹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參贊門下府事趙璜 三司左使趙

“좌명한 공을 기록하여 4등으로 하고, 하교하였다. “지난날에 역신 박포(朴苞)가 해할 마음을 품고, 몰래 회안(懷安) 부자를 끼고 우리 골육을 해하기를 꾀하여, 마침내 군사를 들어 대궐로 향함에 상당후 이저·문하 좌정승 이거이·우정승 하륜·판삼군부사 이무·문하 시랑찬성사 조영무·좌군 총제 이숙번·중군 총제 민무구·좌군 동지총제 신극례·여성군 민무질 등 아홉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에 따르고 사기(事機)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을 평정하고 종사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하였으니, 1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3등을 뛰어올려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사위를 2등을 뛰어올려 말 1백 50결(結), 노비 13구(口), 백은(白銀) 50냥(兩), 표리(表裏) 1단(段), 구마(廐馬) 1필, 구사(丘史) 7명, 진배과령(眞拜把領)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하는 것을 허락한다.

예문준추관 학사 이내는 의를 따르고 사를 잊어, 변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하였고, 이화와 천우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 와서 화란을 구제하고 익대 좌명하였으니, 2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2등을 뛰어올려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등수를 뛰어올려 말 1백 결, 노비 10구, 백은 25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5명, 진배과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창녕백 성석린·완천군 숙·문하 찬성사 이지란·개성 유후 황거정·지삼군부사 윤저·김영렬·우군 동지총제 윤곤·형조 전서 박은·도승지 박석명·상장군 마천목·판전중시사 조희민·봉상경 유기 등 12인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으니, 3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1등을 뛰어올려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1 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생질과 사위를 음직을 주고, 말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銀帶) 1요(腰),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과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한다.

참찬문하부사 조박·삼사 좌사 조운·참찬문하부사 권근·삼사 우사 이직·참지 삼군부사 유양·중군 총제 조정·좌군 총제 김승주·우군 동지총제 서익·전 동지총제 홍서·병조 전서 윤자당·좌승지 이원·우승지 이승상·한성 윤 김정경·우부승지 서유, 상장군 이종무·이웅·심귀령, 대장군 연사중·한규·김우·문빈, 전 중군 장군 윤목 등 22인은 정성을 바쳐 협찬하고, 오래 조호(調護)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 좌명하였고, 군자 소감 송거신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 좌명하였으니, 4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말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과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며, 아울러 모두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적장이 대대로 승습하여 녹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기를 좌명(佐命) 몇 등 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이 있더라도 영세토록 용서하라.”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에 한산(漢山) 서쪽에서 사냥하다가 성난 표범을 만나 말에서 떨어졌었다. 거신이 말을 달려 지나가니, 표범이 이를 쫓아갔으므로, 임금이 위태한 지경을 모면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좌명의 열에 참여시켰다. 문하 좌정승 이거이 등이 전을 올려 좌명공신에게 상으로 내려준 물건을 사양하였다. “신 등이 일찍이 무인년 정사 때에 주상 전하의 주장(推獎)하신 은혜를 입어 지나치게 상사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전하께서 특별히 좌명공신을 칭하시어 의정부로 하여금 상사를 준비하게 하시었으니, 신 등은 감히 중첩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溫 參贊門下府事權近 三司右使李稷 參知三軍府事柳亮 中軍摠制趙卿 左軍摠制金承霖 右軍同知摠制徐益 前同知摠制洪恕 兵曹典書尹子當 左承旨李原 右承旨李升商 漢城尹金鼎卿 右副承旨徐愈 上將軍李從茂 李膺 沈龜齡 大將軍延嗣宗 韓珪 金宇 文彬 前中軍將軍尹穆等二十二人 輪誠協贊 久勤調護 翊戴佐命 軍資少監宋居信 當危救患 翊戴佐命四等稱下 父母妻封贈 直子蔭職 田六十結 奴婢六名 二品以上 白銀二十五兩 三品以下 銀帶一腰 表裏一段 廐馬一匹 丘史一名 眞拜把領四名 許初入仕 竝皆立閣圖形 樹碑紀功 嫡長世襲 不絕其祿 子孫則記于政案曰 佐命某等功臣某之後 雖有犯罪 宥及永世 上在潛邸也 田於漢山之西 遇怒豹墜馬 居信躍馬而過 豹逐之上得脫 至是 俾參佐命之列 門下左政丞李居易等上箋 請辭佐命功臣賞賜物件云 臣等嘗於戊寅定社之時 伏蒙主上殿下推獎之恩 濫受賞賜 今又伏蒙殿下特稱佐命功臣 令議政府備辦賞賜 臣等不敢疊受 不允.”

위의 교서 내용을 종합하면, 태종은 좌명공신을 4등으로 분류하여 제2차 왕자 난을 진압한 47명의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하였다. 1등 공신에는 이저 등 9명, 2등 공신에는 이내 등 3명, 3등 공신에는 성석린 등 12명, 4등 공신에는 조박 등 23명이었다.

첫째,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 1등은 이저·이거이·하륜·이무·조영무·이숙번·민무구·신극례·민무질 등 9명이다. 이들은 역신 박포와 회안 부자가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함에 이르러, 홍역을 자행하여 종사의 안위가 순간에 있었는데, 이들 9명이 마음을 합하여 의에 따르고 사기에 응하여 계책을 정해서, 화란을 평정하고 종사를 편안히 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하였다. 태종은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모두 1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3등을 뛰어올려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등을 뛰어올려 말 1백 50결, 노비 13구, 백은 50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7명, 진배과령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둘째, 익대좌명공신(翼戴佐命功臣) 2등은 이내·이화·이천우 등 3명이다. 이내는 의를 따르고 사를 잊어, 변을 듣고서 제일 먼저 고하여 충성을 다해 좌명하였고, 이화와 이천우는 변을 듣고 급히 달려 와서 화란을 구제하고 익대 좌명하였다. 태종은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2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2등을 뛰어올려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2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등수를 뛰어올려 말 1백 결, 노비 10구, 백은 25냥,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5명, 진배과령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셋째, 익대좌명공신 3등은 성석린·이숙·이지란·황거정·윤저·김영렬·윤곤·박은·박석명·마천목·조희민·유기 등 12명이다. 이들은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러 번 충성을 바치어 익대 좌명하였다. 태종은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모두 3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는 1등을 뛰어올려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1등을 뛰어올려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는 자는 조카와 사위를 음직을 주고, 말 80결, 노비 8구,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3명, 진배과령 6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넷째, 익대좌명공신 4등은 조박·조온·권근·이직·유양·조경·김승주·서익·홍서·윤자당·이원·이승상·김정경·서유·이종무·이웅·심귀령·연사중·한규·김우·문빈·윤목·송거신 등 23명이다. 이들은 정성을 바쳐 협찬하고, 오래 조호(調護)를 부지런히 하여 익대 좌명하였고, 송거신은 위태로움을 당해 환(患)을 구제하여 익대 좌명하였다. 태종은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모두 4등으로 칭하하고, 부·모·처를 봉증하고, 직계 아들은 음직을 주고, 말 60결, 노비 6명, 2품 이상은 백은 25냥, 3품 이하는 은대 1요, 표리 1단, 구마 1필, 구사 1명, 진배과령 4명을 주고, 처음 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2.2 교서 내 인물들

2.2.1 진충좌명공신 1등

진충좌명공신 1등의 9명이다. 이들 진충좌명공신 1등 내역을 좀 더 구체화하면 <표 1>¹¹⁾과 같다.

<표 1> 진충좌명공신 1등 내역

이름(생몰년)	책봉당시관직	추후 대표 관직	작호	공신관련	비고
1) 李佇 (1363~1414)	上黨侯	의정부찬성사	상당군(上黨君)	정사 및 좌명공신	태조의 사위, 아명은 백경(李伯卿), 후에 이에(李薆)로 개명 ¹²⁾
2) 李居易 (1348~1412)	門下左政丞	영사평부사	서원부원군 (西原府院君)	정사 및 좌명공신	이저의 부,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자손에게 내어 줌
3) 河崙 (1347~1416)	右政丞	영의정부사 좌정승 좌의정	진산군(晉山君) 뒤에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	정사 및 좌명공신	태종묘정의 배향공신
4) 李茂 (?~1409)	判三軍府事	우정승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	정사 및 좌명공신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불태워짐
5) 趙英茂 (?~1414)	門下侍郎贊成事	우정승	한산부원군(漢山府院君)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	태종묘정의 배향공신
6) 李叔蕃 (1373~1440)	左軍總制	지중추부사 의정부찬성	안성군(安城君) 뒤에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	정사 및 좌명공신	
7) 閔無咎 (?~1410)	中軍總制	참지승추부사	여강군(驪江君)	정사 및 좌명공신	태종의 처남,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불태워짐
8) 辛克禮 (?~1407)	左軍同知總制	참찬의정부사	취산군(鷲山君)	좌명공신	
9) 閔無疾 (?~1410)	驪城君	좌군총제 우군도총제	여성군(驪城君)	정사 및 좌명공신	태종의 처남,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불태워짐

11) 류주희, “太宗의 執權課程과 政治勢力의 推移,” 『중앙사론』 20(2004. 12), 28-30의 ‘<표 2 > 정사공신’을 참조하되 등급별로 나누고 <표 1> ~ <표 4>로 재구성하였다.

12)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이에, [2019.7.12.]

<http://yongin.grandculture.net/Contents?local=yongin&dataType=01&contents_id=GC00900893>

“이에는 옛 이름이 백경(伯卿)인데, 경(卿)자가 정종(定宗)의 휘(諱)인 경(暻)과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저(佇)로 고쳤으나, 저(佇)자가 또 세자(世子)인 양녕대군의 휘(諱)인 제(提)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하여 애(薆)로 고쳤다.”

위의 <표 1>의 내용을 종합하고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충좌명공신 1등 9명은 태종조의 정국 운영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핵심인물들이다. 9명 중 8명이 정사 및 좌명공신이고, 1명이 정사공신이다. 모두 문무관 고위관직이거나 외척으로서 태종과 가장 밀착된 집단이었다. 태종은 이들에게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직위를 주되 자신의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들 9명 중 하륜과 조영무는 끝까지 태종의 정치를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사후 태종묘정에 배향되었다. 하륜(1347~1416)은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좌정승이 되었고, 3년(1403) 3월 17일 명나라 영락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등극사로서 명나라에 가 조선 왕조를 승인하는 고명인장을 받아왔다. 8년(1408) 셋째 아들 충녕군의 영의정부사 세자사가 되었다. 좌정승·좌의정 등을 역임하고 16년(1416) 70세로 치사하여 진산부원군에 봉해졌다. 치사 후 왕명으로 함길도 선왕의 능침(陵寢)을 순심(巡審)하고 돌아오는 도중인 16년(1416) 11월 6일에 죽었다.¹³⁾ 세종 6년(1424) 2월 6일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¹⁴⁾ 조영무(?~1414)는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관승추부사를 역임하였고, 5년(1405)에 우정승이 되었다. 13년(1413) 한산부원군이 되었다. 14년(1414) 7월 28일에 죽었다.¹⁵⁾ 세종 6년(1424) 2월 6일 하륜과 함께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둘째, 이거이, 이저, 이무,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7명은 모두 정치 일선에서 배제되었다. 이거이(1348~1412)는 정사 및 좌명공신으로 태종에게는 혁명동지였다. 이거이의 아들 이저(1363~1414)는 정사 및 좌명공신으로 이성계의 장녀 경순궁주(慶順宮主)와 혼인한 부마이고, 이백강(李伯剛)은 태종의 장녀 정신궁주와 혼인하여 왕실과 겹사돈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상왕 정종을 다시 추대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아 태종은 4년(1404) 10월 24일 이거이와 이저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또 이거이의 아들 청평군(淸平君) 이백강 등 4인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안치하였다.¹⁶⁾

13)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0월 4일(갑인) 2번째 기사.

“... 河崙左政丞 ...”

『태종실록(太宗實錄)』 5권, 태종 3년(1403) 3월 17일(갑오) 1번째 기사.

“甲午還宮 上聞賀登極使河崙 副使李詹 賀正使趙璞等 與朝廷使臣六人 齎誥命印章而來也.”

『태종실록(太宗實錄)』 15권, 태종 8년(1408) 2월 11일(경인) 1번째 기사.

“庚寅 封第三子今上諱 爲忠寧君 以晉山府院君 河崙領議政府事 世子師 ...”

『태종실록(太宗實錄)』 32권, 태종 16년(1416) 11월 6일(계사) 2번째 기사.

“晉山府院君 河崙卒于定平.”

14) 『세종실록(世宗實錄)』 23권, 세종 6년(1424) 2월 6일(임자) 3번째 기사.

“以晉山府院君 河崙 漢山府院君 趙英茂 議政府右議政鄭擢 完山君 李天祐 鷄林君 李來爲太宗配享功臣 ...”

15) 『태종실록(太宗實錄)』 9권, 태종 5년(1405) 1월 15일(임자) 2번째 기사.

“以趙浚領議政府事 河崙趙英茂爲議政府左右政丞 ...”

『태종실록(太宗實錄)』 26권, 태종 13년(1413) 10월 22일(무진) 1번째 기사.

“戊辰罷趙英茂爲月漢山府院君 ...”

『태종실록(太宗實錄)』 28권, 태종 14년(1414) 7월 28일(기해) 3번째 기사.

“漢山府院君 趙英茂卒 ...”

16) 『태종실록(太宗實錄)』 8권, 태종 4년(1404) 10월 24일(임진) 3번째 기사.

“命廢李居易 李佇爲庶人 又廢居易子淸平君 伯剛等四人爲庶人 外方安置 議政府上疏曰 李居易父子 向上有二

이거이는 결국 태종 12년(1412) 8월 25일에 진주(鎭州)에서 죽었다.¹⁷⁾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이거이의 영정은 자손에게 내어 주었다.¹⁸⁾ 이저도 태종 4년(1404)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함주(咸州)에 귀양갔다가, 을유년에 이천(利川)으로, 또 임강(臨江)으로 옮겼다. 경인년에 소환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진천(鎭川)에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¹⁹⁾ 이무(?~1409)는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우정승이 되었으며, 단산부원군에 봉해졌다. 8년(1408)에 병으로 사직하고, 9년(1409) 민무구와 민무질의 옥사에 관련되어 창원으로 유배, 죽산에서 참수되었으며 뒤에 신원되었다.²⁰⁾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이무의 영정은 불태워졌다.²¹⁾ 이숙번((1373~1440)은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태종 15년(1415)에 의정부찬성이 되었으며, 안성부원군에 봉해졌다. 16년(1416) 6월 21일 천성이 본래 광망(狂妄)하여 간혹 무례(無禮)하다하여 외방으로 추방당하였다.²²⁾ 세종 22년(1440) 3월 15일에 죽었다. 민무구(?~1410)와 민무질(?~1410)은 태종의 처남으로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이들은 태종 2년(1402) 왕이 창종(瘡腫)을 앓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래 병세를 엿보며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협유집권(挾幼執權)’의 혐의를 받아 많은 관련자와 함께 참화를 당하였다.²³⁾ 태종 7년(1407) 7월 10일 영의정부사 이화(李和) 등이 선위 파동 때에 있었던 민무구 형제의 불충스러운 행동을 정식으로 탄핵하여 옥사가 벌어지게 되었다. 7월 12일 민무구를 연안(延安)에 방치하고, 민무질을 장단에 안치하였다. 이후 이무(李茂)의 옥사와 조호(趙瑚)의 난언사건(亂言事件)이 가중되어 민무구 형제는 이무의 옥사로 다시 제주도에 안치되었다가 10년(1410) 3월 17일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하게 하였다.²⁴⁾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민무구, 민무질의 영정은 불태워졌다.²⁵⁾ 신극례(?~1407)는 좌명공신으로

心 本府與三省三功臣 進闕請罪 上慈使歸其鄉 居易父子 以元勳大臣 連姻宗室 過蒙上恩 而有二心 罪莫大焉 願依三省所請 明正其罪.”

- 17) 『태종실록(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8월 25일(정축) 1번째 기사.
“丁丑 李居易死 居易死于鎭州 賜糴米豆三十石 紙百卷 且賜棺槨 又令忠清道都觀察使致祭.”
- 18)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李居易等影子 給其子孫 ….”
- 19) 『태종실록(太宗實錄)』 28권, 태종 14년(1414) 10월 6일(병자) 3번째 기사.
“… 歲甲申 以父罪竄于咸州 乙酉量移利川 又移臨江 庚寅召還 丁父憂 居鎭川 以病卒 年五十二 ….”
- 20) Daum 백과. 이무, [2019.7.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7a3299a>>
- 21)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李茂影子 … 焚之.”
- 22) 『태종실록(太宗實錄)』 31권, 태종 16년(1416) 6월 21일(신사) 1번째 기사.
“… 上曰 叔蕃性本狂妄 間或無禮 非心實然也 今所以放之于外者 予既老矣 後嗣子孫以爲 父信用之人而任之 或致差失也 ….”
- 23)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무질, [2019.7.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0102>>.
- 24)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7월 10일(신유) 2번째 기사.
“開國定社佐命功臣領議政府事李和等 上疏請閔無咎閔無疾辛禮等罪.”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7월 12일(계해) 6번째 기사.
“上乃命無疾亦自願付處 於是置無咎於延安 無疾 長湍 克禮 原州.”
『태종실록(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1410) 3월 17일(계미) 1번째 기사.
“癸未賜閔無咎無疾自盡.”

취산군에 봉해졌다. 참찬의정부사를 지냈다. 태종 7년(1407) 7월 10일 민무구와 민무질의 옥사에 연루되어 7월 12일 원주에 안치되었다. 10월 30일 양주에서 죽었다.²⁶⁾

셋째,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에 이거이의 영정은 자손에게 돌려주고, 이무, 민무질, 민무구의 영정은 모두 불태워졌다.

2.2.2 익대좌명공신 2등

익대좌명공신 2등은 3명이다. 이들 익대좌명공신 2등 내역을 좀 더 구체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익대좌명공신 2등 내역

이름(생몰년)	책봉당시관직	추후 대표 관직	작호	공신관련	비고
1) 李來 (1362~1416)	藝文春秋館學士	중군동제총지 사헌부대사헌	계성군(鷄城君)	좌명공신	태종묘정의 배향공신
2) 李和 (?~1408)	義安公	영의정부사	의안공(義安公)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	태조의 이복동생 의안대군(義安大君). 태종묘정의 배향공신
3) 李天祐 (?~1417)	完山侯	의정부찬성사	완산군(完山君) 뒤에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좌명 및 정사공신	태조서형 李元桂의 子. 태종묘정의 배향공신.

위의 <표 2>의 내용을 종합하고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익대좌명공신 2등 3명은 모두 태종의 충신으로 정치의 여정을 함께 하였고, 사후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이내(1362~1416)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중군동제총지가 되었고, 5년(1405) 4월 5일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며, 16년(1416) 10월 12일에 죽었다.²⁷⁾ 세종 6년(1424) 2월 6일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이화(?~1408)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다.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7년(1407) 7월 4일에 영의정부사가 되었고, 8년(1408) 10월 6일에 운명하였다.²⁸⁾ 이천우(?~1417)는 좌명 및 정사공신이다. 태종 2년(1402) 안주도절제사가 되었고, 완산군에 봉해졌다.

25)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閔無咎無疾影子 焚之.”

26)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10월 30일(경술) 3번째 기사.
“辛克禮死于楊州.”

27) 『태종실록(太宗實錄)』 9권, 태종 5년(1405) 4월 5일(경오) 1번째 기사.
“庚午 以尹抵參議政府事 趙狷 開城留後 朴信參知議政府事 李來司憲府大司憲.”
『태종실록(太宗實錄)』 32권, 태종 16년(1416) 10월 12일(경오) 3번째 기사.
“雞城君 李來卒 ...”

28)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7월 4일(을묘) 2번째 기사.
“河崙 趙英茂罷 以義安大君 和領議政府事 成石璘左政丞 李茂右政丞 ...”
『태종실록(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1408) 10월 6일(경진) 7번째 기사.
“義安大君 和卒 ...”

8년(1408) 12월 15일 의정부찬성사가 되었고 14년(1414) 1월 14일 완산부원군에 봉해졌으며 17년(1417) 4월 25일에 죽었다.²⁹⁾ 세종 6년(1424) 2월 6일 태종묘정에 배향되었다.

2.2.3 익대좌명공신 3등

익대좌명공신 3등은 12명이다. 이들 익대좌명공신 3등 내역을 좀 더 구체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익대좌명공신 3등 내역

이름(생몰년)	책봉당시관직	추후 대표 관직	작호	공신 관련	비고
1) 成石璘 (1338~1423)	昌寧伯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중흥, 개국 및 좌명공신	
2) 李淑 (1373~1406)	完川君	의정부찬성사	완천군(完川君)	좌명공신	이화(李和)의 둘째 아들
3) 李之蘭 (1331~1402)	門下贊成事	문하찬성사	청해군(青海君)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	태조묘정의 배향공신
4) 黃居正 (?~?)	開城留後	참지승추부사, 형조판서	의원군(義原君)	개국 및 좌명공신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자손에게 돌려 주고, 교서와 녹권은 불태워짐
5) 尹柢 (?~1412)	知三軍府事	참판승추부사, 병조판서, 이조판서	칠성군(漆城君)	좌명공신	舊名은 尹方慶
6) 金英烈 (?~1404)	知三軍府事	참판승추부사	의성군(義城君)	좌명공신	
7) 尹坤 (?~1422)	右軍同知摠制	좌군도총제, 평안도도관찰사, 이조판서	과평군(坡平君)	좌명공신	
8) 朴崑 (1370~1422)	刑曹典書	승추부제학, 좌의정	반남군(潘南君) 뒤에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좌명공신	
9) 朴錫命 (1370~1406)	都承旨	지신사, 지의정부사	평양군(平陽君)	좌명공신	공양왕의 아우 귀의군(歸義君) 왕우(王瑀)의 사위
10) 馬天牧 (1358~1431)	上將軍	전라도병마 도절제사, 내시위절제사	회평군(會寧君), 장흥군(長興君), 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	좌명공신	
11) 趙希閔 (?~1410)	判殿中寺事	완산부윤, 한성부윤	평천군(平川君)	좌명공신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불태워짐
12) 柳沂 (?~1410)	奉常卿	전라도도관찰사	서령군(瑞寧君)	좌명공신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불태워짐

29) 『태종실록(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1408) 12월 15일(무자) 2번째 기사.
 “以李天祐爲議政府贊成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27권, 태종 14년(1414) 1월 13일(무자) 2번째 기사.
 “以李天祐爲完山府院君 ….”
 『태종실록(太宗實錄)』 33권, 태종 17년(1417) 4월 25일(신사) 3번째 기사.
 “完山府院君 李天祐卒 ….”

위의 <표 3>의 내용을 종합하고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익대좌명공신 3등 12명 중 성석린, 이숙, 이지란, 윤저, 김영렬, 윤곤, 박은, 박석명, 마천목 등 9명은 태종의 충신이 되어 승진하면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였다. 성석린(1338~1423)은 중흥,³⁰⁾ 개국 및 좌명공신이다. 창녕부원군에 봉해졌다. 태종 3년(1403) 4월 4일에 우의정이 되었고, 5년(1405) 7월 3일에 영의정부사가 되었으며, 7년(1407) 7월 4일에 좌의정이 되었다. 15년(1415)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세종 5년(1423) 1월 12일에 죽었다.³¹⁾ 이숙(1373~1406)은 이화의 둘째 아들이며 좌명공신이다. 태종 5년 12월에 의정부찬성사가 되었고, 태종 6년(1406) 10월 19일 34살의 나이로 죽었다.³²⁾ 이지란(1331~1402)은 개국, 정사, 좌명공신이다. 귀화한 여진족으로 초명은 쿠룬투란티 무르[古論豆蘭帖木兒]이다. 태종 1년(1401) 1월 15일 좌명공신의 교서가 내려지고, 이듬해인 2년(1402) 4월 9일에 죽었다.³³⁾ 윤저(?~1412)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9월 20일 참판승추부사가 되었고, 7년(1407) 3월 3일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9년(1409) 9월 8일에 이조판서가 되었고, 12년(1412) 8월 17일에 죽었다.³⁴⁾ 김영렬(?~1404)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1월 2일 동북면·

30)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흥공신, [2019.7.2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3974>>

중흥공신(中興功臣)은 고려 공양왕 원년에,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공으로 책봉된 공신이다. 공양왕 1년(1389) 11월 문하시중 이성계(李成桂), 판삼사사 심덕부(沈德符), 찬성사 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 정당문학 설장수(裒長壽), 평리 성석린(成石璘), 지문하부사 조준(趙浚),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박위(朴葦), 밀직부사 정도전(鄭道傳) 등 9명이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을 추대하기로 하고, 다음 날 '폐가입진(廢假立眞: 假王을 폐하고 眞王을 세운다는 뜻)'을 명분으로 거사를 꾸며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이들 9명에 대해 공신책봉이 실시되고 중흥공신녹권(中興功臣錄券)이 하사되었다.

31) 『태종실록(太宗實錄)』 5권, 태종 3년(1403) 4월 4일(경술) 1번째 기사.

“庚戌 以成石璘爲右政丞 ….”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 7월 3일(병신) 1번째 기사.

“丙申 以成石璘爲領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7월 4일(을묘) 2번째 기사.

“…成石璘左政丞 ….”

『태종실록(太宗實錄)』 30권, 태종 15년(1415) 10월 28일(임진) 1번째 기사.

“壬辰 以成石璘爲領議政府事 ….”

『세종실록(世宗實錄)』 19권, 세종 5년(1423) 1월 12일(갑오) 8번째 기사.

“昌寧府院君 成石璘卒 ….”

32)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 12월 6일(무진) 3번째 기사.

“以李淑爲議政府贊成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2권, 태종 6년(1406) 10월 19일(을사) 4번째 기사.

“完川君 李淑卒 淑和之第二子也。… 卒年三十四 ….”

33) 『태종실록(太宗實錄)』 3권, 태종 2년(1402) 4월 9일(신유) 3번째 기사.

“青海君 李之蘭卒 之蘭 東北面青州府人也 古名豆蘭帖木兒 ….”

34)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9월 20일(경자) 2번째 기사.

“… 尹柢參判承樞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3권, 태종 7년(1407) 3월 3일(정사) 1번째 기사.

“… 丁巳 以尹柢爲兵曹判書 ….”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8월 10일(기유) 1번째 기사.

강원도 도안무사가 되었고, 4년(1404) 8월 6일 참판승추부사가 되었으며, 그해 4월 12일에 죽었다.³⁵⁾ 윤곤(?~1422)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6년(1406) 2월 11일 좌군도총제가 되었다. 세종 즉위년(1418) 12월 7일에 평안도도관찰사가 되었고, 1년(1419) 9월 25일에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4년(1422) 3월 11일에 죽었다.³⁶⁾ 박은(1370~1422)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3년(1403) 12월 승추부제학이 되었고, 16년(1416) 11월 2일에 좌의정이 되었으며, 세종 4년(1422) 5월 9일 죽었다.³⁷⁾ 박석명(1370~1406)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1년(1401) 7월 21일 지신사가 되었고, 5년(1405) 12월 6일에 지의정부사가 되었으며, 태종 6년(1406) 7월 13일에 죽었다.³⁸⁾ 마천목(1358~1431)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12년(1412) 5월 3일 전라도병마도절제사가 되었고, 18년(1418) 2월 11일 내시위절제사가 되었으며, 세종 13년(1431) 2월 1일에 죽었다.³⁹⁾

-
- “... 己酉 尹柢吏曹判書 ...”
『태종실록(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8월 17일(기사) 2번째 기사.
“漆城君 尹柢 卒 ...”
- 35)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1월 12일(신묘) 1번째 기사.
“... 辛卯 金英烈東北面江原道都安撫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8권, 태종 4년(1404) 8월 6일(을해) 2번째 기사.
“... 金英烈參判承樞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8권, 태종 4년(1404) 12월 1일(무진) 1번째 기사.
“戊辰朔 義城君 金英烈卒 ...”
- 36) 『태종실록(太宗實錄)』 11권, 태종 6년(1406) 2월 11일(임신) 4번째 기사.
“... 尹坤左軍都摠制 ...”
『세종실록(世宗實錄)』 2권, 세종 즉위년(1418) 12월 7일(임오) 2번째 기사.
“... 尹坤 平安道都觀察使 ...”
『세종실록(世宗實錄)』 5권, 세종 1년(1419) 9월 25일(정묘) 3번째 기사.
“以尹坤爲吏曹判書 ...”
『세종실록(世宗實錄)』 15권, 세종 4년(1422) 3월 11일(무진) 2번째 기사.
“坡平君 尹坤卒 ...”
- 37) 『태종실록(太宗實錄)』 6권, 태종 3년(1403) 12월 11일(갑신) 1번째 기사.
“甲申 朴崐承樞府提學 ...”
『태종실록(太宗實錄)』 32권, 태종 16년(1416) 11월 2일(기축) 1번째 기사.
“己丑 朴崐左議政 ...”
『세종실록(世宗實錄)』 16권, 세종 4년(1422) 5월 9일(을축) 2번째 기사.
“錦川府院君 朴崐卒 ...”
- 38) 『태종실록(太宗實錄)』 2권, 태종 1년(1401) 7월 21일(무신) 2번째 기사.
“上命知申事 朴錫命傳旨 ...”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 12월 6일(무진) 3번째 기사.
“朴錫命 知議政府事...”
『태종실록(太宗實錄)』 12권, 태종 6년(1406) 7월 13일(경자) 1번째 기사.
“庚子平陽君 朴錫命卒 ...”
- 39) 『태종실록(太宗實錄)』 23권, 태종 12년(1412) 5월 3일(병술) 3번째 기사.
“馬天牧 全羅道兵馬都節制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35권, 태종 18년(1418) 2월 11일(임진) 3번째 기사.
“以長興君 馬天牧爲內侍衛節制使 ...”
『세종실록(世宗實錄)』 51권, 세종 13년(1431) 2월 1일(병신) 5번째 기사.

둘째, 익대좌명공신 3등 12명 중 3명 황거정, 조희민, 유기는 죄에 연루되어 파직되거나 처형을 당하여 정치에서 거세되었다. 황거정(?~?)은 개국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3년(1403) 4월 4일 참지승추부사, 9년(1409) 6월 4일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⁴⁰⁾ 11년(1411) 7월 28일 사헌부에서 이승인·이종학을 죽인 황거정·손홍종에게 죄주기를 청하였고, 8월 11일 정도전·손홍종·황거정은 폐하여서인을 삼고, 자손을 금고토록 하였다. 16년(1416) 6월 10일에 자손들이 금고형에서 해제되었다.⁴¹⁾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황거정의 영정은 그 자손에게 내어 주고, 황거정의 교서와 공권은 불태워졌다.⁴²⁾ 조희민(?~1410)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9월 20일에 완산부윤이 되었고, 5년(1405) 1월 21일 평천군에 봉작되면서 한성부윤을 겸하게 하였다. 9년(1409) 10월 2일에 민무구와 민무질의 옥사에 관련되어 광양에 유배되었고, 10년(1410) 1월 30일 유배지에서 처형되었다.⁴³⁾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조희민의 영정은 불태워졌다.⁴⁴⁾ 유기(?~1410)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1월 13일 전라도도관찰사가 되었고, 9년(1409) 10월 2일에 민무구와 민무질의 옥사에 관련되어 광양에 유배되었고, 10년(1410) 1월 30일 유배지에서 처형되었다.⁴⁵⁾ 세종 4년(1422) 윤 12월

“長興府院君 馬天牧卒 ….”

40) 『태종실록(太宗實錄)』 5권, 태종 3년(1403) 4월 4일(경술) 1번째 기사.

“庚戌 … 黃居正參知承樞府事.”

『태종실록(太宗實錄)』 17권, 태종 9년(1409) 6월 4일(을사) 3번째 기사.

“… 黃居正刑曹判書 ….”

41) 『태종실록(太宗實錄)』 22권, 태종 11년(1411) 7월 27일(병술) 3번째 기사.

“司憲府上疏請黃居正 孫興宗擅殺李崇仁 李種學之罪 ….”

『태종실록(太宗實錄)』 22권, 태종 11년(1411) 8월 11일(경자) 1번째 기사.

“庚子命鄭道傳 孫興宗黃居正廢爲庶人 子孫禁錮 ….”

『태종실록(太宗實錄)』 31권, 태종 16년(1416) 6월 10일(경오) 3번째 기사.

“命除鄭道傳 黃居正子孫禁錮 ….”

42)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黃居正等影子給其子孫 … 黃居正教書功券 并皆焚之.”

43)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9월 20일(경자) 2번째 기사.

“… 趙希閔 完山府尹 ….”

『태종실록(太宗實錄)』 9권, 태종 5년(1405) 1월 21일(무오) 1번째 기사.

“戊午 以平川君 趙希閔 兼漢城.”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2일(경자) 1번째 기사.

“…上曰 穆等五人 減死罪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財產沒官 於是流穆于泗州 彬于長興 思德 寧海 希閔 光陽 沂 海南.”

『태종실록(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1410) 1월 30일(정유) 1번째 기사.

“丁酉 遣巡禁司官 誅尹穆 趙希閔 李彬 姜思德 柳沂于貶所 … 副司直尹殷於光陽 長興 誅李彬 趙希閔 ….”

44)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趙希閔 影子 焚之.”

45)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1월 13일(임진) 3번째 기사.

“… 柳沂 全羅道都觀察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2일(경자) 1번째 기사.

“…上曰 穆等五人 減死罪一等 杖一百 流三千里 財產沒官 於是流穆于泗州 彬于長興 思德 寧海 希閔 光陽 沂 海南.”

8일 유기의 영정은 불태워졌다.⁴⁶⁾

셋째,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황거정의 영정은 그 자손에게 내어 주고, 황거정의 교서와 공권은 불태워졌다. 조희민의 영정과 유기의 영정은 불태워졌다.

2.2.4 익대좌명공신 4등

익대좌명공신 4등은 23명이다. 이들 익대좌명공신 4등 내역을 좀 더 구체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익대좌명공신 4등 내역

이름(생몰년)	책봉당시관직	추후대표관직	작호	공신 관련	비고
1) 趙璞 (1356~1408)	參贊門下府事	참찬의정부사, 동북면 도체찰사, 호조판서	평원군(平原君)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	태종과 동서지간, 태종 9년(1409) 12월 9일 녹권 추탈,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영정은 불태워짐
2) 趙溫 (1347~1417)	三司左使	의정부찬성사	한평군(漢平君), 한천군(漢川君),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	이성계의 외조카
3) 權近 (1352~1409)	參贊門下府事	참찬의정부사, 예문관대제학	화산군(花山君), 길창군(吉昌君)	개국 및 좌명공신	
4) 李稷 (1362~1431)	三司右使	이조판서, 예문관대제학, 영의정	성산군(星山君),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개국 및 좌명공신	태종의 장인 태종 19년(1419) 5월 19일 직첩과 공신녹권을 빼앗김. 세종 4년(1422) 1월 26일 직첩과 공신녹권을 돌려 받음.
5) 柳亮 (1355~1416)	參知三軍府事	풍해도도절제사, 예문관대제학, 우의정	문성군(文城君) 뒤에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개국 및 좌명공신	
6) 趙卿 (1374~1429)	中軍摠制	길주도 도안무찰리사, 공조판서, 우의정	한평군(漢平君) 뒤에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	좌명공신	趙涓으로 개명
7) 金承暉 (1354~1424)	左軍摠制	참지승추부사, 참찬의정부사, 병조판서	여산군(麗山君) 뒤에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	좌명공신	
8) 徐益 (?~1412)	右軍同知摠制	풍해도조전절제사	마성군(麻城君)	좌명공신	

『태종실록(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1410) 1월 30일(정유) 1번째 기사.

“丁酉 遣巡禁司官 誅尹穆 趙希閔 李彬 姜思德 柳沂于貶所 … 乃遣巡禁司護軍李繩直於海珍 誅柳沂 …”

46)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柳沂 影子 焚之.”

이름(생몰년)	책봉당시관직	추후대표관직	작호	공신 관련	비고
9) 洪恕 (?~1418)	前 同知摠制	전라도도절제사	남성군(南城君) 뒤에 남양군(南陽君)	좌명공신	
10) 尹子當 (?~1422)	兵曹典書	경상도병마도절제사, 길주도도안부찰리사	칠원군(漆原君) 뒤에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	좌명공신	
11) 李原 (1368~1429)	左承旨	대사헌, 참지의정부사, 우의정	철성군(鐵城君) 뒤에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좌명공신	세종 8년(1426) 3월 15일 직첩과 공신녹권을 빼앗김. 세조 2년(1456) 7월 23일에 공신녹권을 돌려 받음.
12) 李升商 (?~1413)	右承旨	지의정부사, 형조판서	계림군(鷄林君)	좌명공신	
13) 金鼎(定)卿 (1345~1419)	漢城尹	좌군도총제, 개성유후사	연성군(蓮城君)	좌명공신	태종 1년(1401)까지는 한성군 金鼎卿으로, 태종 3년(1403) 이후는 연성군 金定卿으로 사용됨
14) 徐愈 (1356~1411)	右副承旨	풍해도도관찰사, 예조판서	이성군(利城君)	좌명공신	
15) 李從茂 (1360~1425)	上將軍	검좌군총제, 삼군도체찰사	통원군(通原君) 뒤에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	좌명공신	
16) 李膺 (1365~1414)	上將軍	참지의정부사, 호조판서, 병조판서	영양군(永陽君)	좌명공신	
17) 沈龜齡 (1350~1413)	上將軍	검중군동지총제, 좌군도총제	풍천군(豐川君)	좌명공신	
18) 延嗣宗 (1365~1434)	大將軍	우군동지총제, 길주도찰리사, 관중군도총제부사	곡산군(谷山君) 뒤에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	개국공신 및 좌명공신	
19) 韓珪 (?~1416)	大將軍	중군총제, 중군절제사	면성군(沔城君) 뒤에 면성부원군(沔城府院君)	좌명공신	
20) 金宇 (?~1418)	大將軍	검좌군총제, 우군도총제	희천군(熙川君)	좌명공신	舊名은 金都吉
21) 文彬 (?~1413)	大將軍	풍해도첨절제사	월천군(越川君)	좌명공신	
22) 尹穆 (?~1410)	前 中軍將軍	지함주사	원평군(原平君)	좌명공신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윤목의 영정은 불태워짐
23) 宋居信 (1369~1447)	軍資少監	별시위좌이번절제사, 중군도총제	여량군(礪良君) 뒤에 여산부원군(礪山府院君)	좌명공신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와 인척

위의 <표 3>의 내용을 종합하고 인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익대좌명공신 4등 23명 중 조운, 권근, 유양, 조경, 김승주, 서익, 홍서, 윤자당, 이승상, 김정경, 서유, 이종무, 이응, 심귀령, 연사중, 한규, 김우, 문빈, 송거신 등 19명은 태종의 충신으로 정치일선에

서 활약하였다. 조온(1347~1417)은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4월 18일에 의정부 찬성사가 되었고,⁴⁷⁾ 17년(1417) 윤 5월 19일에 죽었다. 권근(1352~1409)은 개국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1년(1401) 12월 9일에 참찬의정부사가 되었고, 태종 6년(1406) 4월 28일에 예문관대제학 지경 연춘추성균관사제자우빈객이 되었으며, 태종 9년(1409) 2월 14일에 죽었다.⁴⁸⁾ 유양(1355~1416)은 개국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1월 12일 풍해도도절제사가 되었고, 4년(1404) 6월 6일에 예문관대제학이 되었으며, 15년(1415) 6월 9일 우의정이 되었다. 16년(1416) 4월 2일에 죽었다.⁴⁹⁾ 조경(1374~1429)은 좌명공신이다. 공신이 된 후 조온으로 개명하여 활동하였다. 태종 9년(1409) 11월 8일에 길주도도안무찰리사가 되었고, 13년(1413) 6월 5일에 공조판서가 되었으며, 세종 8년(1426) 1월 24일 우의정으로서 활동하였다. 11년(1429) 10월 11일에 죽었다.⁵⁰⁾ 김승주(1354~1424)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3년(1403) 4월 24일에 참지승추부사가 되었고, 11년(1411) 11월 6일 참찬의정부사가 되었으며, 14년(1414) 8월 3일 병조판서가 되었다. 세종 6년(1424) 2월 8일에 죽었다.⁵¹⁾ 서익(?)

-
- 47) 『태종실록(太宗實錄)』 3권, 태종 2년(1402) 4월 18일(경오) 1번째 기사.
“庚午 趙溫議政府贊成事 ….”
- 48) 『태종실록(太宗實錄)』 2권, 태종 1년(1401) 12월 9일(계해) 3번째 기사.
“權近崔有慶 參贊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1권, 태종 6년(1406) 4월 28일(무자) 2번째 기사.
“起復權近爲藝文館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 世子右賓客 ….”
『태종실록(太宗實錄)』 17권, 태종 9년(1409) 2월 14일(정해) 1번째 기사.
“丁亥 吉昌君 權近卒 ….”
- 49)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1월 12일(신묘) 1번째 기사.
“辛卯 柳亮 豐海道都節制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7권, 태종 4년(1404) 6월 6일(을해) 2번째 기사.
“… 柳亮 藝文館大提學 ….”
『태종실록(太宗實錄)』 29권, 태종 15년(1415) 6월 19일(갑신) 4번째 기사.
“以柳亮爲議政府右議政 ….”
『태종실록(太宗實錄)』 31권, 태종 16년(1416) 4월 2일(갑자) 1번째 기사.
“甲子 文城府院君 柳亮卒 ….”
- 50)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1월 8일(병자) 2번째 기사.
“以趙涓爲吉州道都安撫察理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25권, 태종 13년(1413) 6월 5일(임자) 1번째 기사.
“壬子 趙涓工曹判書 ….”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1426) 1월 24일(기미) 5번째 기사.
“… 右議政趙涓 ….”
『세종실록(世宗實錄)』 46권, 세종 11년(1429) 10월 11일(갑신) 3번째 기사.
“漢平府院君 趙涓卒 ….”
- 51) 『태종실록(太宗實錄)』 5권, 태종 3년(1403) 4월 24일(경오) 1번째 기사.
“庚午 以金承霖爲參知承樞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22권, 태종 11년(1411) 11월 6일(계해) 2번째 기사.
“… 金承霖 鄭擢參贊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28권, 태종 14년(1414) 8월 3일(계묘) 1번째 기사.
“… 金承霖兵曹判書 ….”
『세종실록(世宗實錄)』 23권, 세종 6년(1424) 2월 8일(갑인) 1번째 기사.

~1412)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8년(1408) 5월 20일 풍해도조전절제사가 되었고, 그해 10월 11일 운검총제로서 역할을 했으며, 12년(1412) 8월 17일에 죽었다.⁵²⁾ 홍서(?~1418)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1월 10일 전라도도절제사로 활동하였고, 세종 즉위년 10월 21일에 죽었다.⁵³⁾ 윤자당(?~1422)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7년(1407) 12월 8일에 경상도병마도절제사가 되었고, 12년(1412) 12월 12일에 길주도도안무찰리사가 되었으며, 세종 4년(1422) 7월 18일에 죽었다.⁵⁴⁾ 이승상(?~1413)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5년(1405) 7월 3일 지의정부사가 되었고, 11년(1411) 11월 20일 형조판서가 되었으며, 13년(1413) 2월 6일에 죽었다.⁵⁵⁾ 김정경(1345~1419)은 태종 4년(1404) 3월 13일 좌군도총제가 되었고, 8년(1408) 9월 2일 개성유후사가 되었으며, 세종 1년(1419) 7월 15일에 죽었다.⁵⁶⁾ 서유(1356~1411)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9월 20일 풍해도도관찰사가 되었고, 9년(1409) 10월 11일 예조판서가 되었으며, 11년(1411) 6월 4일에 죽었다.⁵⁷⁾ 이종무(1360~1425)는

“甲寅 平陽府院君 金承霖卒 ….”

- 52) 『태종실록(太宗實錄)』 15권, 태종 8년(1408) 5월 20일(무진) 1번째 기사.
“戊辰 麻城君 徐益 豐海道助戰節制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1408) 10월 11일(을유) 3번째 기사.
“… 雲劍總制 麻城君 徐益 ….”
『태종실록(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8월 17일(기사) 2번째 기사.
“…麻城君 徐益 卒 ….”
- 53)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1월 10일(기축) 4번째 기사.
“賜全羅道都節制使 洪恕宮醢表裏.”
『세종실록(世宗實錄)』 1권, 세종 즉위년(1418) 10월 21일(정유) 6번째 기사.
“南陽君 洪恕卒 ….”
- 54)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12월 8일(정해) 3번째 기사.
“… 尹子當 慶尙道兵馬都節制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12월 12일(계해) 1번째 기사.
“癸亥 以尹子當爲吉州道都安撫察理使 ….”
『세종실록(世宗實錄)』 16권, 세종 4년(1422) 7월 18일(계유) 2번째 기사.
“漆原府院君 尹子當卒 ….”
- 55) 『태종실록(太宗實錄)』 10권, 태종 5년(1405) 7월 3일(병신) 1번째 기사.
“丙申 李升商知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22권, 태종 11년(1411) 11월 20일(정축) 2번째 기사.
“李升商 刑曹判書 ….”
『태종실록(太宗實錄)』 25권, 태종 13년(1413) 2월 6일(을묘) 1번째 기사.
“乙卯 雞林君 李升商卒 ….”
- 56) 『태종실록(太宗實錄)』 7권, 태종 4년(1404) 3월 13일(갑인) 3번째 기사.
“… 金定卿 左軍都總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1408) 9월 2일(정미) 1번째 기사.
“… 蓮城君 金定卿 爲開城留後司 ….”
『세종실록(世宗實錄)』 4권, 세종 1년(1419) 7월 15일(무오) 3번째 기사.
“蓮城君 金定卿 卒…”
- 57)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9월 20일(경자) 2번째 기사.
“… 徐愈 豐海道都觀察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11일(기유) 2번째 기사.

좌명공신이다. 태종 6년(1406) 2월 11일 겸 좌군총제가 되었고, 세종 1년(1419) 5월 14일 대마도 정벌을 위해 삼군도체찰사가 되었으며, 7년(1425) 6월 9일에 죽었다.⁵⁸⁾ 이응(1365~1414)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6년(1406) 8월 19일에 참지의정부사가 되었고, 9년(1409) 10월 11일 호조판서가 되었으며, 14년(1414) 1월 13일 병조판서가 되었고, 14년(1414) 7월 24일에 죽었다.⁵⁹⁾ 심귀령(1350~1413)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6년(1406) 8월 19일에 겸 중군동지총제가 되었고, 9년(1409) 10월 11일에 좌군도총제가 되었고, 13년(1413) 6월 20일에 죽었다.⁶⁰⁾ 연사중(1365~1434)은 개국공신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1월 13일에 우군동지총제가 되었고, 10년(1410) 4월 10일 길주도찰리사가 되었으며, 세종 1년(1419) 3월 5일 관중군도총제부사가 되었고, 16년(1434) 5월 8일에 죽었다.⁶¹⁾ 한규(?~1416)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1월 13일 중군총제가 되었고,⁶²⁾ 12년(1412) 7월

-
- “… 徐愈 禮曹判書 …”
『태종실록(太宗實錄)』 21권, 태종 11년(1411) 6월 4일(계사) 1번째 기사.
“癸巳 利城君 徐愈 卒 …”
- 58) 『태종실록(太宗實錄)』 11권, 태종 6년(1406) 2월 11일(임신) 4번째 기사.
“… 李從茂 兼左軍摠制 …”
『세종실록(世宗實錄)』 4권, 세종 1년(1419) 5월 14일(무오) 4번째 기사.
“… 卽命以長川君 李從茂 爲三軍都體察使 …”
『세종실록(世宗實錄)』 28권, 세종 7년(1425) 6월 9일(정미) 2번째 기사.
“長川府院君 李從茂 卒 …”
- 59) 『태종실록(太宗實錄)』 12권, 태종 6년(1406) 8월 19일(을사) 1번째 기사.
“乙巳 李膺 參知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11일(기유) 2번째 기사.
“… 李膺 戶曹判書 …”
『태종실록(太宗實錄)』 27권, 태종 14년(1414) 1월 13일(무자) 2번째 기사.
“… 李膺 兵曹判書 …”
『태종실록(太宗實錄)』 28권, 태종 14년(1414) 7월 24일(을미) 1번째 기사.
“… 乙未 兵曹判書李膺 暴卒 …”
- 60) 『태종실록(太宗實錄)』 12권, 태종 6년(1406) 8월 19일(을사) 1번째 기사.
“…乙巳 沈龜齡兼中軍同知摠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11일(기유) 2번째 기사.
“…沈龜齡 左軍都摠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25권, 태종 13년(1413) 6월 20일(정묘) 2번째 기사.
“… 豐山君 沈龜齡 卒 …”
- 61)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1월 13일(임진) 3번째 기사.
“… 延嗣宗 右軍同知摠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1410) 4월 10일(병오) 2번째 기사.
“… 延嗣宗 爲吉州道察理使 …”
『세종실록(世宗實錄)』 3권, 세종 1년(1419) 3월 5일(기유) 2번째 기사.
“… 延嗣宗判中軍都摠制府事 …”
『세종실록(世宗實錄)』 64권, 세종 16년(1434) 5월 8일(갑신) 9번째 기사.
“谷山府院君 延嗣宗 卒 …”
- 62)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1월 13일(임진) 3번째 기사.
“… 韓珪 中軍摠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7월 25일(무신) 2번째 기사.

25일 중군절제사가 되었으며, 태종 16년(1416) 11월 13일에 죽었다. 김우(?~1418)는 좌명공신이다. 태종 7년(1407) 10월 3일 좌군총제가 되었고, 15년(1415) 12월 28일 우군도총제가 되었으며, 18년(1418) 2월 19일에 죽었다.⁶³⁾ 문빈(?~1413)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9년(1409) 10월 27일 풍해도첨절제사가 되었고, 13년(1413) 7월 14일에 죽었다.⁶⁴⁾ 송거신(1369~1447)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12년(1412) 별시위좌이번절제사가 되었고, 세종 1년(1419) 3월 5일에 중군도총제가 되었고, 29년(1447) 5월 14일에 죽었다.⁶⁵⁾

둘째, 익대좌명공신 4등 23명 중 조박과 윤목 2명은 죄에 연루되어 정치에서 배제되었고, 녹권과 직첩은 물론 영정까지 불태워졌다. 조박(1356~1408)은 개국, 정사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과는 동서지간이다. 태종 3년(1403) 4월 20일 참찬의정부사가 되었고, 8년(1408) 7월 13일 동북면 도체찰사가 되었으며, 8년(1408) 12월 6일에 죽었다.⁶⁶⁾ 9년(1409) 12월 9일 사헌부의 상소에 “조박이 죽친 유씨(柳氏)의 아들 불노(佛奴)를 상왕의 아들이라 거짓 일컬어 궁중에 들이고, 원자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상왕께서 아들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거짓 일컬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 신민들이 모두 전하에게 귀부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불궤(不軌)한 일을 도모하였으니 벌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에 태종은 녹권을 추탈하고 자손은 금고(禁錮)하도록 하였다.⁶⁷⁾ 세종 4년

“... 中軍節制使韓珪 李湛 崔閔德 ...”

『태종실록(太宗實錄)』 32권, 태종 16년(1416) 11월 13일(경자) 1번째 기사.

“...庚子 沔城府院君 韓珪 卒 ...”

63)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10월 3일(계미) 1번째 기사.

“... 金宇 熙川君兼左軍總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30권, 태종 15년(1415) 12월 28일(신묘) 2번째 기사.

“... 金宇 右軍都總制 ...”

『태종실록(太宗實錄)』 35권, 태종 18년(1418) 2월 19일(경자) 2번째 기사.

“熙川君 金宇 卒 ...”

64)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27일(을축) 5번째 기사.

“置十一道都節制使各一人 ... 豐海道前節制使金繼志 金重寶 越川君 文彬 ...”

『태종실록(太宗實錄)』 26권, 태종 13년(1413) 7월 14일(신묘) 3번째 기사.

“越川君 文彬 卒 ...”

65) 『태종실록(太宗實錄)』 24권, 태종 12년(1412) 7월 25일(무신) 2번째 기사.

“... 別侍衛左一番節制使金南秀 李興發 左二番節制使李從茂 宋居信 ...”

『세종실록(世宗實錄)』 3권, 세종 1년(1419) 3월 5일(기유) 2번째 기사.

“... 宋居信中軍都總制 ...”

『세종실록(世宗實錄)』 116권, 세종 29년(1447) 5월 14일(갑진) 2번째 기사.

“... 礪山府院君 宋居信 卒 ...”

66) 『태종실록(太宗實錄)』 5권, 태종 3년(1403) 4월 20일(병인) 1번째 기사.

“丙寅 以趙璞參贊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1408) 7월 13일(기미) 2번째 기사.

“以趙璞爲東北面都體察使 ...”

『태종실록(太宗實錄)』 16권, 태종 8년(1408) 12월 6일(기묘) 3번째 기사.

“戶曹判書平原君 趙璞卒 ...”

67)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2월 19일(병진) 2번째 기사.

“司憲府上疏 略曰 ...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 拒之而不納

(1422) 윤 12월 8일 조박의 영정은 불태워졌다.⁶⁸⁾ 윤목(?~1410)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1년(1401) 4월 1일 지함주사가 되었고, 7년(1407) 10월 9일 평양부윤으로 활동하였으며, 9년(1409) 10월 2일 민무질, 민무구 옥사에 관련되어 사주에 유배되었다. 10년(1410) 1월 3일 유배지에서 참수되었다.⁶⁹⁾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윤목의 영정은 불태워졌다.⁷⁰⁾

셋째, 익대좌명공신 4등 23명 중 이직과 이원 2명은 죄에 연루되어 정치에서 배제되어 녹권 및 직첩을 빼앗겼다가 다시 환급받았다. 이직(1362~1431)은 개국 및 좌명공신이다. 태종 2년(1402) 10월 4일 예문관대제학이 되었고, 15년(1415) 5월 9일 염치용(廉致庸)·민무회(閔無悔)·윤흥부(尹興阜)의 죄상을 가볍게 다루었다 하여 성주(星州)에 유배되었고, 그해 5월 19일 직첩과 공신녹권을 거두었다.⁷¹⁾ 세종 4년(1422) 1월 6일 태상왕(태종)이 이직의 딸을 후궁(愼順宮主 李氏, 1390년~?)으로 맞아들였고, 그해 1월 26일 이직의 직첩과 공신녹권을 돌려주었다. 6년(1424) 9월 7일 영의정이 되었다. 13년(1431) 8월 7일에 죽었다.⁷²⁾ 이원(1368~1429)은 좌명공신이다. 태종 1년(1401) 7월 13일 대사헌이 되었고, 6년(1406) 2월 18일 참지의정부사가 되었으며, 18년(1418) 6월 5일 우의정이 되었다.⁷³⁾ 세종 8년(1426) 3월 15일 사헌부의 계에 “이원이 사리에 어긋나게 남의

其爲詐稱明矣 舉國臣民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 其懷詐不忠 當置於法 … 璞可追奪錄券 禁錮子.”
68)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趙璞 影子 焚之.”

69)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 태종 1년(1401) 4월 6일(갑자) 2번째 기사.

“以尹穆知陝州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 태종 7년(1407) 10월 9일(기축) 1번째 기사.

“己丑 平壤府尹 尹穆 …”

『태종실록(太宗實錄)』 18권, 태종 9년(1409) 10월 2일(경자) 1번째 기사.

“庚子 杖流尹穆 李彬 姜思德 趙希閔 柳沂于遠地 … 於是流穆于泗州 …”

『태종실록(太宗實錄)』 19권, 태종 10년(1410) 1월 30일(정유) 1번째 기사.

“丁酉 分遣巡禁司官 誅尹穆 趙希閔 李彬 姜思德 柳沂于貶所 … 副司直禹導於泗州 誅尹穆 …”

70)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 尹穆 影子 焚之.”

71) 『태종실록(太宗實錄)』 4권, 태종 2년(1402) 10월 4일(갑인) 2번째 기사.

“… 李稷 藝文館大提學 …”

『태종실록(太宗實錄)』 29권, 태종 15년(1415) 5월 9일(을사) 3번째 기사.

“… 命安置右議政李稷於星州 …”

『태종실록(太宗實錄)』 29권, 태종 15년(1415) 5월 19일(을묘) 2번째 기사.

“命收李稷職牒及功臣錄券 …”

72) 『세종실록(世宗實錄)』 15권, 세종 4년(1422) 1월 6일(갑자) 2번째 기사.

“太上王納李氏于宮中 李氏 稷之女 早寡 時年三十三矣 …”

『세종실록(世宗實錄)』 15권, 세종 4년(1422) 1월 26일(갑신) 5번째 기사.

“還賜李稷職牒及功臣錄券 …”

『세종실록(世宗實錄)』 25권, 세종 6년(1424) 9월 7일(기묘) 2번째 기사.

“以李稷爲領議政 …”

『세종실록(世宗實錄)』 53권, 세종 13년(1431) 8월 7일(기해) 2번째 기사.

“星山府院君 李稷卒 …”

73) 『태종실록(太宗實錄)』 2권, 태종 1년(1401) 7월 13일(경자) 3번째 기사.

노비를 증여받아 부리고 있으며,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강제로 장가들어 첩을 삼은 사실은 사(赦)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관한 예(例)로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이오니, 바라옵건대 법에 의하여 철저히 징계하시와 뒷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이에 세종은 공신의 녹권과 직첩을 회수하고 여산(礪山)에 유배토록 하였다. 4년 후인 세종 11년(1429) 유배지에서 죽었다.⁷⁴⁾ 세조 2년(1456) 7월 23일에 공신녹권을 돌려받았다.⁷⁵⁾

넷째,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조박의 녹권은 추탈하고, 조박과 윤목의 영정은 불태워졌다.

3. 관련 문서의 반사 기록

3.1 교서, 녹권 및 사패

태종은 1년(1401) 1월 15일 교서를 반포하였고, 공신도감으로 하여금 교서를 참조하여 공신들에게 교서, 녹권 및 사패문서를 내려주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달 후인 2월 25일에 북정(北亭)에서 좌명공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의안대군 이화 등 47인을 불러 손수 교서·녹권·사패를 주었다.⁷⁶⁾

태종이 이들에게 직접 교서·녹권·사패를 내렸는데, 교서는 공신도감이 각 개인에게 공신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신교서이다. 녹권은 공신도감이 왕이 내린 교서에 기초하여 공신의 직함·성명 및 반사 사유, 공신의 등급별 총수, 포상 및 특전, 녹권 발급을 담당한 관원의 직함, 성명 및 수결 등을 기재한 문서이다. 사패는 왕이 상급으로 주는 전지와 노비 또는 면역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그것들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는 성격의 문서이다.⁷⁷⁾

이때 각 공신에 반사된 교서는 마천목에게 내린 교서가 도판으로 남아 있는데 실물의 소재가

“... 李原大司憲 ...”

『태종실록(太宗實錄)』 11권, 태종 6년(1406) 2월 18일(기묘) 2번째 기사.

“... 李原參知議政府事 ...”

『태종실록(太宗實錄)』 35권, 태종 18년(1418) 6월 5일(갑신) 1번째 기사.

“... 甲申 李原右議政 ...”

74) 『세종실록(世宗實錄)』 31권, 세종 8년(1426) 3월 15일(기유) 5번째 기사.

“司憲府啓 李原 自己家僮非少也 一口婢金莊 稱買於金道練之妻 已爲難信 且其妻媻崔孟良奴妻都思加 歲甲午 金道練已曾得決從賤 其所生四口 非孟良之奴婢 受贈於金道練明矣 冒稱傳得於孟良 且子息收養之人 不問賢否 皆受官職 不直不正莫甚 歲戊戌 原與洪汝 爭富商內隱達之女爲妾 事覺見劾 太宗以皆大臣 特原勿論 仍命非有內旨 毋嫁他人 太宗升遐 纔過卒哭 原以動臣首相 欺君逆命 任意作妾 殊無股肱大臣之義 若濫受官職事在赦前 固不足論 其以非理 受人臧獲 至今役使 違教強娶 因仍爲妾 不可以赦前例論 請按律痛懲 以戒後人 命收功臣錄券與職牒 自願礪山安置 後四年卒于貶所.”

75) 『세조실록(世祖實錄)』 4권, 세조 2년(1456) 7월 23일(경인) 3번째 기사.

“命還給李原功臣錄券.”

76)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 태종 1년(1401) 2월 25일(갑인) 1번째 기사.

“甲寅 宴佐命功臣于北亭 召義安大君 和等四十七人 手授教書錄券及賜牌.”

77) 박성중,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에 수록된 功臣들의 姓名 분석,” 『민족문화논총』 30(2004), 207.

불분명하고,⁷⁸⁾ 사패는 47인에게 준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녹권은 마천목에게 준 실물 한 건이 남아 있다.

3.2 공신회맹서

태종 1년(1401) 2월 12일에 임금이 마암(馬巖)의 단(壇) 아래에 가서 정사, 좌명공신과 더불어 삼혈 동맹하였는데, 제복을 입었다. 회맹서(會盟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문(建文) 3년 2월 12일 신축에 조선 국왕 이(李) 【휘(諱)】는 삼가 혼신 의안대군 이화·상당군 이지·완산군 천우·문하 좌정승 이거이·우정승 하륜·판삼군부사 이무 등을 거느리고 황천상제·종묘·사직·산천 백신의 영에 감히 밝게 고합니다. 옳되려 생각건대, 주나라 제도에는 맹제(盟載)의 법이 있고, 한나라가 일어나매 대려(帶礪)의 맹세가 있었으니, 신명 앞에 충신을 굳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신무하신 덕으로 운수에 응하여 나라를 열어서 무강한 업을 창건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권간(權奸)이 영총을 탐하여 어린아이를 끼고서 우리 형제를 해하려 하여, 변이 불측한 지경에 있었습니니다. 상천이 마음을 달래고 종친과 혼신의 협력에 힘입어서 능히 난을 평정하고, 적자이고 장자임으로 인하여 우리 상왕을 껴서 명을 받아 대통을 잇게 하니, 천륜이 꺾이고 종사가 안정되었습니다. 뜻밖에 또 교활한 자가 간혹한 계획을 품고 반역을 꾸미어, 우리 골육을 도모하고자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해서, 화가 호흡지간에 있었는데, 또 종친과 혼신이 충성과 힘을 다함으로 인하여 이내 곧 쳐서 평정하였습니다. 상왕께서 국본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심이 흔들리기 쉬운 것을 염려하시어, 어질지 못한 내가 동모제이고, 또 개국 정사 때에 조그마한 공이 있다 하시어, 명하여 저부(儲副)를 삼아서 감무(監撫)의 권한을 위임하셨으므로, 속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더니, 갑자기 상왕께서 신기를 전하여 주시매, 사양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생각건대, 어질지 못한 내가 오늘에 이른 것은 실로 종친과 혼신의 충의한 신하들이 힘을 합하여 난을 평정하고, 익대 좌명한 힘에 힘입은 바이니, 그 큰 공을 아름답게 여기어 영원토록 잊기 어렵습니다. 이에 유사에 명하여 상전을 거행하고 길한 날을 가려서 신명께 제사하고 맹호를 맺습니다. 이미 맹세한 뒤에는 길이 한마음으로 지성으로 서로 도와 환난을 구제하고, 과실을 바로잡아, 시종 일의로써 함께 왕업을 보존하여 자손 만대에 오늘을 잊지 말지니, 진실로 혹시라도 이익을 꾀하여 해를 피하고, 사를 껴서 공을 배반하고, 맹호를 범하고 기망 번사하고, 몰래 혈뜯고 헤치기를 꾀한다면 신명께서 반드시 죽이어 양화가 자손 만대에 미칠 것이며, 범한 것이 사직에 관계되는 자는 마땅히 법으로 논할 것이니, 내가 감히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취(自取)인 것입니다. 각각 맹세한 말을 공경하여 영원히 이 정성을 지킬지니라.” 임금이 드디어 성균관에 이르러 문묘에 참알하였다.”⁷⁹⁾라고 하였다.

78)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의미 검토 -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전북사학』 36(2010), 71-73.

79)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 태종 1년(1401) 2월 12일(신축) 1번째 기사.

“辛丑 上如馬巖壇下 與佐命功臣 歃血同盟 用祭服 其載書曰

維建文三年歲次辛巳二月朔庚寅十二日辛丑 朝鮮國王 李諱 謹率勳臣義安大君 和 上黨君 李佇 完山君 天祐 門下左政丞李居易 右政丞河崙 判三軍府事李茂等 敢昭告于皇天上帝宗廟社稷山川百神之靈 伏以周制有盟載之法 漢興有帶礪之誓 所以要質神明 而固忠信也 惟我太上王 以神武之德 應運開國 以建(無疆) [無疆] 之業 不幸權奸貪寵挾幼 恚我兄弟 變在不測 尙賴上天誘衷 親勳協力 克底平定 以嫡以長 挾我上王 受命繼統 天倫以敘 宗社以定 不圖又有狡獪懷姦構逆 謀我骨肉 稱兵向闕 禍在呼吸之間 又緣親勳奮忠効力 旋即討平 上王乃慮國本未定 人心易搖 謂予不穀 爲同母弟 且於開國定社之際 又有微効 命爲儲副 委以監撫之權 夙夜兢兢 尙懼不堪 遽承上王傳付神器 辭不(護) [獲] 命 乃即于位 載念不穀 得至今日 實惟親勳忠義之臣 協力靖亂 翊戴

위와 같이 왕과 공신들이 모여 천지신명 앞에 공신회맹제를 올리면서 작성된 회맹문의 내용은 태조 7년(1398) 8월에 일어난 제1차 왕자난과 정종 2년(1400) 정월에 일어난 제2차 왕자난을 거쳐 왕좌에 오른 태종이 익대좌명한 공신들에게 충성서약을 받는 내용이다. 이 맹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길 경우는 신명께서 반드시 죽이어서 양화가 자손만대에 미칠 것이니 절대 배반하지 말라는 경고장이었다. 이어서 태종은 공신도감에 명하여 김침(金瞻) 등을 시켜 맹서(盟書; 결의 형제의 서약서)를 전사(傳寫)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⁸⁰⁾

태종 즉위초 좌명공신 회맹은 집권 기반의 안정을 최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태종은 이거이·이저 옥사를 마무리하고 4년(1404) 11월 16일에는 개국·정사·좌명 삼공신 66명과 회맹 개최하고 서약하도록 하였다.⁸¹⁾

세종 3년(1421) 3월 20일에는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과 함께 공신과 공신의 적장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장막을 동교의 도비연(都飛淵) 들판에 설치하였는데, 상왕이 임금과 함께 거동하여, 상왕은 걸상에 앉아서 남쪽을 향하고, 임금은 다리가 낮은 의자에 서쪽을 향하여 앉았다. 공신으로 봉녕부원군 이복근, 창녕부원군 성석린, 금천부원군 박은, 철성부원군 이원, 옥천부원군 유창, 평양부원군 김승주, 장천군 이종무, 평성군 조견, 한평군 조연, 파평군 윤곤, 곡산군 연사중, 여산군 송거신과 적장(嫡長)으로 익평군 석근(石根) 등 26인과 왕족·부마·병조의 당상관·대언 등이 연회에 참석하였다.⁸²⁾

이는 태종조와 세종 초기까지 정치운영이 이들 3공신을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개국세력과 개국에 반대하였거나 동조하지 않은 경력을 가진 이들의 상이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佐命之力是賴 嘉丕丕績 永世難忘 爰命有司 舉行賞典 茲卜吉辰 祀于明神 用結盟好 既盟之後 永肩一心 至誠相與 患難相救 過失相規 終始一義 共保丕基 子孫萬世 無忘今日 苟或規利避害 挾私背公 干盟犯好 欺罔變詐 陰謀讒害 神明必殛 殃及子孫 有犯關係社稷者 當以法論 非予敢違 惟其自取 各欽誓言 永克時忱 至成均館 謁文廟。”

- 80) 『태종실록(太宗實錄)』 1권, 태종 1년(1401) 2월 12일(신축) 2번째 기사.
“宴功臣 上謂功臣曰 予之親與於盟者 豈徒然哉 於是 詳說盟書之意 功臣感服 摠制徐益 酒酣起舞 上笑曰 ”此乃樊噲之舞也 命趙璞賦詩 群臣皆和 成石璘以母喪不至 命召 石璘承命 以吉服至 喜氣浮面 上曰 功臣焉能遍誦盟書乎 命功臣都監 使金瞻等傳寫 悉頌之。”
- 81) 『태종실록(太宗實錄)』 8권, 태종 4년(1404) 11월 16일(갑인) 1번째 기사.
“甲寅 開國 定社 佐命功臣 同盟于大清觀北 上押其誓文 不親臨其會 … 開國 定社 佐命 三功臣 未嘗同盟 上慮三功臣未能和協 會而同盟 以一其心 監司邊鎮州牧分憂者, 皆來與焉 三功臣六十六人 盟詣詣闕 各賜表裏 御無逸殿 設大宴以慰之。”
- 82) 『세종실록(世宗實錄)』 11권, 세종 3년(1421) 3월 20일(임오) 1번째 기사.
“壬午 三功臣及功臣嫡長獻壽于上王 設帳殿於東郊都飛淵之原 上王與上臨幸 上王御胡床南向 上御低足平床 西向 功臣奉寧府院君 福根 昌寧府院君 成石璘 錦川府院君 朴崐 鐵城府院君 李原 玉川府院君 劉敞[劉敞] 平壤府院君 金承靈 長川君 李從茂 平城君 趙涓 漢平君 趙涓 坡平君 尹坤 谷山君 延嗣宗 礪山君 宋居信及嫡長 益平君 石根等二十六人 宗室 駙馬 兵曹堂上 代言等侍宴。”

3.3 영정

태종 15년(1415) 3월 18일에 개국·정사·좌명 3공신 영정을 나누어 주니, 영의정부사 하륜 등이 예궐하여 배사하였다.⁸³⁾

공신들의 영정인 공신도형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공신호가 책록되고 곧 입각도형의 명에 따라 행해졌다. 공신도형은 당해 공신 및 자손들에게는 치하와 함께 보상하고 여타 신민들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군주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도상 작업의 하나로 행하여졌다. 게다가 공신도상은 대개 제작 연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초상화의 전체적인 양식 규명에 기준이 될 수 있다.⁸⁴⁾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공신도감에서 죄를 지은 세 공신들의 화상과 공권과 교서를 올리니, 정도전·심효생·오몽을·이근·장지화·손홍중·이제·이거이·황거정 등의 화상은 그 자손에게 내어 주고, 장담·조박·박포·이무·민무구·민무질·유기·조희민·윤목·조기의 화상과 손홍중·황거정의 교서·공권과 장사정의 공권은 이를 모두 불사르라고 명하였다.⁸⁵⁾

이때 정사공신 1등 중 이무, 민무구, 민무질 3명, 정사공신 3등 중 조희민, 유기 2명, 정사공신 4등 중 조박과 윤목 2명의 영정은 모두 불태워졌다.

4. 결 론

조선 태종조 책봉된 좌명공신의 교서와 관련 문서에 대한 기록을 종합하여 공신들을 책봉하기 위해 어떤 기록들이 작성되었는지, 이런 기록들은 공신들의 정치참여와 변화를 통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종은 1년(1401) 1월 15일에 제2차 왕자 난을 승리로 이끌어 자신의 정치발판을 마련해준 좌명공신 47명을 4등으로 나누어 공신으로 책록하였다. 태종은 좌명공신을 4등으로 분류하여 제2차 왕자 난을 진압한 47명의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하였다. 1등 공신에는 이저 등 9명, 2등 공신에는 이내 등 3명, 3등 공신에는 성석린 등 12명, 4등 공신에는 조박 등 23명이었다.

2) 교서 내 인물들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충좌명공신 1등 9명은 태종조의 정국 운영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핵심인물들이다.

83) 『태종실록(太宗實錄)』 29권, 태종 15년(1415) 3월 18일(병진) 3번째 기사.

“分賜開國 定社佐命三功臣影子 領議政府事河崙等 詣闕拜謝。”

84)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상화, [2019.8.1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7016>>

85) 『세종실록(世宗實錄)』 18권, 세종 4년(1422) 윤12월 8일(신유) 3번째 기사.

“功臣都監上被罪三功臣等影子 功券 教書 命鄭道傳 沈孝生 吳蒙乙 李勲 張志和 孫興宗 李濟 李居易 黃居正等 影子給其子孫 張湛 趙璞 朴苞 李茂 閔無咎 無疾 柳沂 趙希閔 尹穆 趙綺影子及孫興宗 黃居正 教書 功券 張思靖功券 并皆焚之。”

9명 중 8명이 정사 및 좌명공신이고, 1명이 정사공신이다. 모두 문무관 고위관직이거나 외척으로서 태종과 가장 밀착된 집단이었다. 이들 9명 중 하륜과 조영무는 끝까지 태종의 정치를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정승의 반열에 올랐고, 사후 태종묘정에 배향되었다. 이거이, 이저, 이무,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신극례 7명은 모두 정치 일선에서 배제되었다.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에 이거이의 영정은 자손에게 돌려주고, 이무, 민무질, 민무구의 영정은 모두 불태워졌다.

둘째, 익대좌명공신 2등 3명 이내, 이화, 이천우는 모두 태종의 충신으로 정치의 여정을 함께 하였고, 사후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셋째, 익대좌명공신 3등 12명 중 성석린, 이숙, 이지란, 윤저, 김영렬, 윤곤, 박은, 박석명, 마천목 등 9명은 태종의 충신이 되어 승진하면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였다. 익대좌명공신 3등 12명 중 3명 황거정, 조희민, 유기는 죄에 연루되어 파직되거나 처형을 당하여 정치에서 거세되었다.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황거정의 영정은 그 자손에게 내어 주고, 황거정의 교서와 공권은 불태워졌다. 조희민의 영정과 유기의 영정은 불태워졌다.

넷째, 익대좌명공신 4등 23명 중 조은, 권근, 유양, 조경, 김승주, 서익, 홍서, 윤자당, 이승상, 김정경, 서유, 이종무, 이응, 심귀령, 연사중, 한규, 김우, 문빈, 송거신 등 19명은 태종의 충신으로 정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익대좌명공신 4등 23명 중 조박과 윤목 2명은 죄에 연루되어 정치에서 배제되었고, 녹권과 직첩은 물론 영정까지 불태워졌다. 익대좌명공신 4등 23명 중 이직과 이원 2명은 죄에 연루되어 정치에서 배제되어 녹권 및 직첩을 빼앗겼다가 다시 환급받았다.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조박의 녹권은 추탈하고, 조박과 윤목의 영정은 불태워졌다.

3) 태종은 1년(1401) 1월 15일 교서를 반포하였고, 공신도감으로 하여금 교서를 참조하여 공신들에게 교서, 녹권 및 사패문서를 내려주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달 후인 2월 25일에 북정(北亭)에서 좌명공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의안대군 이화 등 47인을 불러 손수 교서·녹권·사패를 주었다.

4) 태종 1년(1401) 2월 12일에 정사, 좌명공신과 더불어 삼혈 동맹하고, 공신회맹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신도감에 명하여 김첨 등을 시켜 회맹문을 전사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4년(1404) 11월 16일에는 개국·정사·좌명 삼공신 66명과 회맹 개최하고 서약하도록 하였다. 세종 3년(1421) 3월 20일에는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과 함께 공신과 공신의 적장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5) 태종 15년(1415) 3월 18일에 개국·정사·좌명 3공신 영정을 나누어 주니, 영의정부사 하륜 등이 예궐하여 배사하였다. 세종 4년(1422) 윤 12월 8일 공신도감에서 정사공신 1등 중 이무, 민무구, 민무질 3명, 정사공신 3등 중 조희민, 유기 2명, 정사공신 4등 중 조박과 윤목 2명의 영정은 모두 불태워졌다.

이 글은 조선 태종조 좌명공신의 책봉 교서와 관련 문서의 기록 연구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한 일차 사료에 기반한 기초 연구로서의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차후 실물고증과 연계하여 좀 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윤주. “조선 초 공신 책봉과 개국·정사·좌명공신의 정치적 동향.” 『한국사학보』 35(2009. 5). 153-187.
- 류주희. “太宗의 執權課程과 政治勢力의 推移.” 『중앙사론』 20(2004. 12). 3-37.
- 박성중.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에 수록된 功臣들의 姓名 분석.” 『민족문화논총』 30(2004). 203-248.
- 박성호. “조선 초기 功臣敎書의 文書史的 義의 검토 -1392년 李濟 開國功臣敎書와 1401년 馬天牧 佐命功臣敎書-.” 『전북사학』 36(2010). 63-86.
- 박성호. “조선시대 사패(賜牌)의 발급과 문서양식.” 『고문서연구』 41(2012. 8). 95-124.
- 박성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초기 왕명문서의 고문서학적 가치.” 『고궁문화』 7호(2014). 8-29
- 박성호. “조선초기 좌명공신 김영렬 공신문서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50(2017. 5). 159-180.
- 서병패. “조선 초기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의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29(2005. 12). 27-58.
- 진나영, 송일기. “『定社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3호(2013. 8). 227-250.
- 千惠鳳. “義安伯李和 開國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3(1988. 6). 25-67.
- Daum 백과. 이무, [2019. 7. 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7a3299a>>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국공신, [2019.7.24.]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1584>>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남수, [2019.8.1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8863>>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철, [2019.8.1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0778>>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무질, [2019.7.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0102>>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습, [2019.8.1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0860>>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신, [2019.8.1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0889>>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구, [2019.8.15.]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9980>>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사공신, [2019.7.24.]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0303>>
-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흥공신, [2019.7.2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3974>>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상화, [2019.8.1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57016>>

디지털용인문화대전. 이애, [2019.7.12.]

<http://yongin.grandculture.net/Contents?local=yongin&dataType=01&contents_id=GC00900893>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eon, Hye-bong. 1988. "A study on 'the Meritorious Certificate of Founding Subject' awarded to Uianbaek Yi-hwa in Yi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 25-67.
- Jin, Na-Young & Song Il-Gie. 2013. "A Bibliographical Study on JeongSa-Gongsin-Nokgw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ion Science*, 47(3): 227-250.
- Kim, Yun-joo. 2009. "A Study on Investiture of Meritorious Retainer and Political Tendency of GaegukJungsa Jwamyong Meritorious Retainers in the earlier Joseon Dynasty."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35: 153-187.
- Park, Sung-ho. 2010. "A Philological Study of Royal Edicts of Merit Subject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alysis of the Yi-je's Royal Edict of Gae-guk Merit Subject in 1392 and the Ma-cheonmok's Royal Edict of Joa-myeong Merit Subject in 1401." *JEONBUK SAHAK*, 36: 63-86.
- Park, Sung-ho. 2012. "A Study on Issuing of Sapae and the Styles of Document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Archives*, 41: 95-124.
- Park, Sung-ho. 2014. "Academic Value of Certificates of Appointment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GOGUNG MUNHWA*, 7: 8-29.
- Park, Sung-ho. 2017. "A Consideration on the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Kim Yeong-reol." *Journal of Korean Archives*, 50: 159-180.
- Park, Seong-Jong. 2004. "An Analysis of Personnel Names in the Nokkwon Bestowed to Won-gil Le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30: 203-248.
- Ryu, Ju-Hee. 2004. "Taejong's Usurping Process of the Throne and the Transition of Political Power." *CHUNG-ANG SARON: Journal of Chung-Ang Historical Studies*, 20: 3-37.
- Seo, Byeong-Pae. 2005.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Jwamyong-Gongsin-nokgwon of Ma, Cheon-mok in the Early Chosun Dynasty." *Journal of Bibliography*, 29: 27-58.